

복합공간으로서의 교회 강단 디자인의 종교적 기능 실현을 위한 상징성 연구 - 백석대학교교회 강단 디자인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Symbolic Meanings of Design of Church Chancel as
Multispace for the Realization of its Religious Function
- Focused on Baekseok University Church Chancel -**

조애래 (Ellie Ch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the worship space of church buildings expresses the Christian symbolism presented by the Bible for the purpose of serving as a place of worship while performing various functions. The architecture of Baekseok 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 is used as a specific research object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symbolism of the space function. The focus is on what symbolic meaning the design of the front wall of the pulpit has in relation to the essential functions of the church. It can be established that the form of the cleft of the wall of the pulpit has five Christian symbols.

First, it reveals the weakness of mankind and the protection of God by symbolizing the cleft of the rock and safe places human being is hidden for protection by Him. Second, by symbolizing the place of a foreigner who is self-confident or goes astray, the believer makes himself realize that he is sinner and needs his salvation. Thirdly, it reminds us of God, who is a refuge, who is our savior. Fourthly, by symbolizing the miracle of splitting the rock and watering them in Rephidim, we realize that the Bible, the Word of God symbolized by the living water, keeps us alive. Fifthly, by symbolizing the torn curtain of the most holy place in the temple and salvation from sin, the believer is required to appreciate God's grace has saved the sinners and to realize that prayer is a privilege of believers. The wall design of Baekseok 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 reveals religious meanings by its symbolism and carries a rich Christian message that binds users to the community of faith.

Key words : worship space, Christian symbolism, chancel design, religious community

* 2020년 02월 28일 접수, 03월 24일 최종수정, 03월 31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백석예술대학교 2020 교내 연구지원 사업에 의한 것임.

** 백석예술대학교(Baekseok Arts University) 디자인미술학부 교수, 서울 서초구 방배로 9길 23, elliecho@bau.ac.kr

1. 서론

오늘날 많은 교회는 종교적 기능뿐 아니라 그 밖의 여러 기능을 다양하게 담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필요를 교회가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의 종교적 기능이 그 밖의 다양한 기능과 무관하게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교회는 종교적 기능뿐 아니라 그 기능과 연관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수행해 왔다. 중세 유럽사회는 교회가 있는 광장을 중심으로 원형을 이루는 도시 형태를 이루었으며, 종교적 활동뿐 아니라 모든 활동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 왔다. 중세 교회의 예배를 가리키는 미사(messe)라는 용어가 박람회(박람회)를 나타내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세 교회는 도시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교회 주변의 중앙 광장은 그 도시공동체의 주민들이 경제적 활동이나 문화적 활동 등을 수행하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중세 교회 미사를 마친 신자들은 교회 밖 마당에 형성된 시장에서 장을 보았으며, 이 시장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광장이 되었다. 중세 독일의 도시는 이 시장을 ‘마르크트’(Markt)라 불렀다. 임석재(임석재, 2008: 146)에 따르면 성당이 광장을 다스렸지만 광장은 성당뿐 아니라 시청사, 시민회관, 일반상가도 포용하는 다목적 기능을 지닌 곳이었다.

교회가 자리한 광장뿐 아니라 교회 건축물 공간 자체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교회건축 공간은 예배와 찬양, 기도 등을 드리기 위한 영적 공간이기도 하며, 종교 교육 등을 비롯한 여러 교육을 수행하는 지적 공간이기도 하며(이은경, 2014: 301), 신자들 사이의 친교와 예술 및 문화 행사도 가능하게 하는 문화 공간이기도 하다(최선민, 2014: 18). 교회건축물은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교회건축물이 주중에는 공연시설, 체육시설, 오피스나 병원으로 사용되다가 주일에만 예배 공간으로 드러지는 경우도 있다. Figure 1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수정교회는 교회의 주위를 공원화하여 주민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준 사례이다. Figure 2에서 볼 수 있듯이 오스트리아의 스타이르 성 프란시스 교회는 친환경적인 공간 설계와 예술가의 작품을 유리 탑 안에 설치함으로써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여 주민과 외부인까지도 예배로 초대하고 있다. Figure 3에서 보는 헬싱키의 템페리 아키오 교회는 암벽을 교회 벽면으로 활용하면서 자연환경과 건물이 통합되는 디자인으로써 친환경적인 교회건축물로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 하노버 EXPO에 있었던 조립식 교회는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독일 중부 작은 도시(Volkenroda)로 옮기면서 예배 홀을 둘러싼 회랑에 전시관을 두어 아름다운 교회건축으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최선민, 2014: 20-21).

이처럼 교회건축물이 종교적 기능뿐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기능도 함께 담당하려 할수록 교회건축물의 실내디자인은 기독교 이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기보다 좀 더 상징적이고 다의적으로 보여주

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할 때 교회건축물 공간을 종교적 기능 외의 다른 기능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러한 공간은 기독교적 의미를 담은 상징들로 채워져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 아는 사람에게는 기독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독교적 메시지를 암묵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만 전달하기도 할 것이다. 교회 예배 공간 정면에 십자가를 배치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추상적 이미지를 배치하는 것이 이러한 경향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그 공간은 주일에 예배 공간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평일에 문화 공간이나 교육 공간으로도 사용되기에 용이하다(박시범·신흥경, 2007: 260).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교회건축물의 의미와 기능을 문헌고찰을 통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교회건축물이, 특히 예배 공간이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면서도 종교적 기능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배 공간이 종교적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이미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공간이기보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공간이



Figure 1. Garden Grove Community Church with Resident Friendliness in park, Source: http://theologia.kr/board_church/56221



Figure 2. The church of St. Franziskus which has become a landmark, Source: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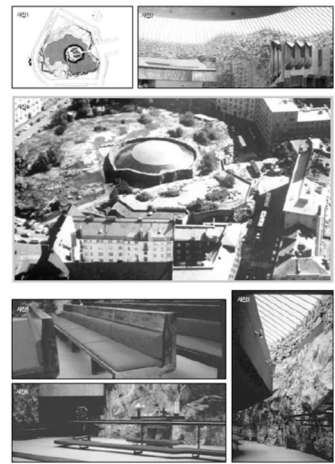


Figure 3. The Temperi Akio church which utilizes rock walls and hills to become a landmark tourist destination, Source: <http://www.christiantoday.us/2834>



Figure 4. The landmark Hanover Expo is used as a church and has a variety of exhibition halls, Source: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6>

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런 주장이 예배 공간의 본질적 의미와 역할과 모순되지 않음을 밝히고자 한다. 물론 예배 공간의 상징적 의미는 특정 개인이나 공동체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시한 의미이어야 한다(오테주·이상호, 2005: 185).

이를 위해 다목적 기능의 건축물을 사용하는 백석대학교교회(서울)의 예배 공간을 구체적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공간의 특징과 상징성을 규명하며, 특히 그 예배 공간 중 강단 디자인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상징적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백석대학교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기능을 종교적 기능에 바탕을 두고 수행하려고 하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특히 백석대학교교회 강단 벽면 디자인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하여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백석대학교교회 강단 벽면 디자인이 백석대학교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반영하는 디자인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문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 봉사 활동이 백석대학교와 백석예술대학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 토대를 백석대학교교회가 제공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 본론

교회건축물, 특히 예배 공간이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면서도 종교적 기능도 유지할 수 있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교회건축물의 의미와 기능을 문헌고찰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건축물의 의미와 기능

(1) 교회건축물의 의미

교회건축물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같은 공간에 모여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영적인 공간이다. 김휘정이 지적하듯이, 교회공간은 “거룩하면서도 항상,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귀음, 옆으로는 인간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김휘정, 2012: 233).”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수직적 관계에서 연합되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동시에 그렇게 연합된 사람들이 하나되게 하는 성령 안에서 수평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이다(루이스 벌코프, 2000, 821).

교회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릴 때 예배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 무엇보다 예배 공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이끄시고 받으신다는 임재의식을 느끼도

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그곳에서의 예배가 그들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예배 공간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저항감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디자인은 십자가와 같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디자인보다는 예배 공간의 영적 상징성을 잘 드러내는 분위기와 형태, 빛과 색채, 재료 등을 사용하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창희가 지적하듯이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사용은 어두움을 밝히는 단순히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조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빛은 예배 공간에서 다양한 방법과 배열을 통해 어떤 초월적인 영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상징으로 다루어져 왔다(전창희, 2016: 61).” 김정오와 이재규에 따르면 “강대상을 통하여 반사되는 빛에 따라 회중석에 앉은 성도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빛에 의하여 다양화된 상징성을 통하여 교회공간에 강대상과 빛”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김정오·이재규, 2015: 20). 또한 박광애가 지적하듯이 교회 안의 꽃작품의 색채가 “설교자와 성도들에게 계시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선교에 미치는 역동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박광애, 2000: 95). 이다연은 성막에 사용된 오방색과 같은 색채가 예배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다연, 2011: 69).

교회 건축, 특히 예배 공간에 사용되는 형태와 빛, 색채 등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표현의 양식이기도 하다. 또한 예배 공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공간으로서 예배 공동체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도록 하기도 한다(정시춘, 2004: 77-78).

(2) 성막의 종교적 의미

구약에서 예배 공간은 에덴동산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다. 정장복에 따르면 예배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에덴에서 시작되었다(정장복, 2003: 19). 김용신에 따르면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피조세계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예배라 할 수 있다(김용신, 2016: 13).

그러나 구약에서 예배 공간의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는 성막에서 자세하게 나타난다. 성막은 방주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Ilion T. Jones, 1991: 21; 김용신, 2016: 15).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타락 후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시고 설계하신 장소인 성막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김용신, 2016: 15).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에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도 예배의 규모가 커지고 화려해진 것 외에는 성막의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는 기능을 감당했다. 신약에서 예배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다(김용신,

2016: 22).

예배 공간이 종교적 의미를 기반으로 다양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성막의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막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최초의 교회건축입과 동시에 가장 중요하고 교훈적인 의미를 지닌 교회 건축의 모범적인 모형(오태주·이상호, 2006: 158)”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막은 종교적 기능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 건축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기 때문이다(오태주·이상호, 2006: 160).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었다.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작은 장식이나 색채까지도 하나님은 지정하셨으며, 그것들에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셨다. 그리고 예배자가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자로 부르신 시내 산이 성막의 모형이기도 하다. 시내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신비로운 곳이기도 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육신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다(왕대일, 2009: 12-13). 이처럼 성막은 그리스도인이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성막을 모델로 하는 예배 공간은 이러한 만남을 상징하며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태주와 이상호는 한국교회 건축이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충족시키는 ‘건물’로서의 교회당은 생각하였으나 ‘하나님을 위한 건축’으로서의 교회당은 미처 생각지 못했으며”, “교회 건축이 교회의 사역에 미치는 대내외적인 영향과 상징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오태주·이상호, 2005: 185).

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드는 법을 말씀하셨다. 에덴동산이 창조세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듯이 성막은 창조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압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곳이다. 하나님은 창조세계를 설계하신 것처럼 성막도 직접 설계하셨다(Richard H. Ritter et al., 1986: 15).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예술작품의 극치를 담고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성막을 설계하심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을 가능하도록 하셨기에 우리는 성막에서의 예배에서뿐 아니라 창조세계 안에서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예술적 솜씨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기에 우리는 예술을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기독교 예술가라면 예술 작업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이 사람들 마음에 생기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Richard H. Ritter et al., 1986: 35).

성막의 구조를 교회 건축 구조에 직접 연결한 것은 개혁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

이 있을 수도 있다. 구약의 제사법이나 절기법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 번에 완전히 온전한 희생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제사법과 절기법 뒤에 있는 영적 원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구약에서 양과 염소 등의 희생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희생물로 대체되었으며, 구약의 희생물들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잠정적인데 반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번에 영속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또 다른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온전하신 희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예배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희생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영적 원리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변함 없다.

개혁신학에 따르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를 현대 교회 건축 디자인에 그대로 재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형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구약의 예표인 성막이나 성전의 구조는 신약의 영적 원리를 나타내는 조형적 이미지나 상징적 이미지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 예표하는 신약의 그리스도는 기독교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이미지에, 어떤 공간을 예배공간으로 사용하면서도 평일에는 비종교적인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명료한 이미지보다는 구약의 추상적이고 예표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3) 교회 건축의 종교적 의미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성막을 모델로 하는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독교 예술의 장이었고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가장 잘 구현하는 사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막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며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시는 장소이듯이, 교회 건축도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건축은 신자들의 마음과 삶, 활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 영향력은 상징적이고 예술적인 공간 형태와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성막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작되어야 했지만, 동시에 성막은 인간의 노동과 수고를 통해 완성되어야 했다. 이처럼 교회 건축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종교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도록 설계되어야 함과 동시에 그 건축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 건축물은 신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배경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교회 건축이 각 시대의 문화와 상황을 잘 드러내는 예술 작품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정시춘, 2004: 81).

과거 교회 건축양식은 각 시대마다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다. 교회 건축은 각 시대별로 독특한 양식

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엽부터 교회 건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하나의 양식을 보여주기보다는 각 교회의 비전과 건축자의 의지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교회 건축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초엽부터는 교회가 고딕양식과 같은 특정한 양식에 따라 획일적으로 건축되는 일이 사라졌다. 따라서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양식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교회 건축물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각 교회 건축물에 서로 다르게 깃들어 있는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각 교회의 비전과 건축자의 의지에 비추어 살펴보는 일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각 교회의 비전은 목회자나 신자들의 개인적 바램이나 취향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각 교회의 비전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 교회건축이 비록 시대적 양식에 따르지 않고 각 교회의 비전을 따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토대를 두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성막이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설계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현대 교회 건축가는 성경 말씀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동시에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야 할 사명을 지닌다.

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는 문화명령을 주셨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스려야 하는 책임을 지녔다. 기독교 예술가도 자신에게 맡겨진 예술 영역을 하나님의 명령이 구현되는 영역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을 지닌다. 무엇보다 은 우주의 요약판인 에덴동산과 성막을 모델로 하는 교회 건축물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자들의 전 인격적인 삶을 기독교적인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4) 교회 건축의 기능

교회 건축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만나주시는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나는 수평적 관계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눅 23:45). 그 결과 “우리는 공허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히 4:16). 우리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엡 2:13)는 선포를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기” 때문이다(엡 2:14). 따라서 교회 건축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감당해야 한다.

오늘날 지역교회가 거룩하고 영적인 활동뿐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도 같이 수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서구교회는 예배 공간을 오직 종교적이고 영적인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는다. 주일에 예배 공간으로 사용되는 장소가 평일에는 일상적 활동을 위한 장소로도 사용된다(Reinhard Giselmann, 1972: 표지; 박기용·김정재, 2002: 121). 한국교회도 선교 초기부터 예배 공간을 그렇게 사용해왔다. 예배당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서뿐 아니라 친교활동이나 봉사활동, 교육활동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한국사회가 한국교회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을 때 교회 건축이 예배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강하게 부각시켜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한국교회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가 늘어나는 시점에 한국교회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간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회 건축물의 공간이 다목적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고전 9:20)라는 원칙에 따른 사도 바울의 선교전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서는 양보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을 선택할 때에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방식을,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방식을 취했다. 명시적으로 기독교적인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십자가가 높게 달린 교회 종탑을 세우기보다는 교회 건물 벽면에 십자가를 튀지 않게 새겨 넣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건축물에서 상징적 요소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박기용·김정재, 2001: 11). 이는 교회 공간을 예배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가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박기용·김정재, 2002: 121). 교회 건축물이 신자들을 위한 예배 기능뿐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한 복합 기능도 담당함으로써 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정시춘, 2004: 198). 정시춘이 지적하듯이 교회 건축공간이 휴게시설이나 문화시설, 간단한 사회체육시설도 담아냄으로써 지역사회에 열린 이미지를 줌으로 지역 주민들이 교회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때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정시춘, 2004: 199).

이처럼 교회가 신자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교회 공간은 다용도 복합공간으로 설계되고 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디자인도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한 개방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유용우, 2014: 176). 무엇보다 교회건축물이 지역 정서에 맞지 않아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건축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건축 디자인은 지역성을 살리는 토착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할 때 자연환경이나 주변

요소와 잘 조화되는 건축물이 만들어질 것이다(정시춘, 2004: 202).

무엇보다 교회 공간이 평일에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사용되거나 기독교 문화예술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지역사회 선교나 기독교문화예술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도시교회의 경우 예배실이나 식당과 같이 큰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자들뿐 아니라 지역 도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교회의 개방성과 확장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독교적인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일반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동일할 때 지역주민들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전해지는 기독교의 메시지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조용일·이은석, 2004: 291-294).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진 교회건축물은 그 형태와 이미지를 통해 예배 가운데 신자들에게 영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의 문화와 상징을 표현하는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예배 공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서 그 형태나 분위기, 이미지, 강단부, 성가대, 회중석등의 구성방식과 형태, 분위기 등 모든 것을 통해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어 교회의 사명을 더욱 도울 수 있다(정시춘, 2004: 81-83). 이를 통해 교회건축물은 그 교회가 어떤 시대와 지역,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독교적 문화 창달에 이바지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프랑스 롱샹의 노트르담 뒤 오 교회이다.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는 Figure 5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 롱샹(Ronchamp)의 노트르담 뒤 오(Notre-Dame du Haut) 교회를 1950년에 설계하고 1953년에 시공하여 1955년에 완공했다. 그는 이 교회의 외부형태를 디자인할 때 여러 가지 상징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도록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Figure 5. Notre-Dam-du-Haut, Ronchamp p, France, Le Corbusier, Source: <https://www.arch2o.com/the-story-of-5-arch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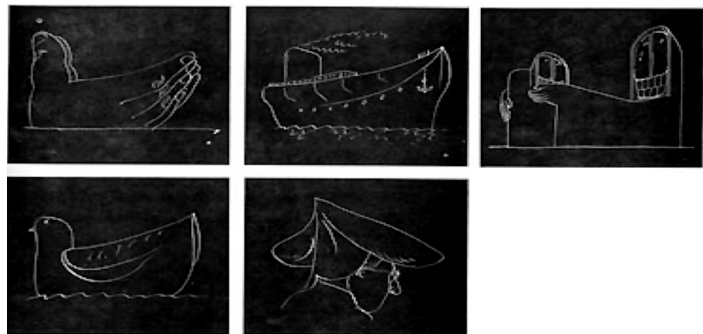


Figure 6. Initial sketches of Notre dame, Ronchamp, bearing analogies to common sightings Source: <https://www.arch2o.com/the-story-of-5-archists/>

르코르뷔제가 이 교회를 지으며 Figure 6에서 볼 수 있듯이 5가지의 스케치를 그려 교회건축물의 외형이 나타나는 상징을 표현해보았다고 한다. 즉 하나님의 손, 방주, 오리, 사제의 두건, 한 성도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등의 이미지이며 우리는 이 교회의 외형에서 이러한 상징을 느껴 볼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사다리꼴 사각형 평면은 기능과 형태에 따라 곡선화되었으며, 적절한 첨가와 분절을 통해 비대칭적으로 구성되었다. 부속 예배실은 신석기 시대 고인돌처럼 강력한 뿌리에 기반을 둔 신과의 수직적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 건축물은 사방이 확 트여 있는 장소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변과 조화를 잘 이루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교회와 교회 밖의 이원론적 분리를 지양하고 도리어 개방성과 연계성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2. 교회건축물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

(1) 교회건축물 상징의 중요성

상징(symbol)이란 사물을 전달할 때 매개로 사용되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상징은 의미나 가치 등과 같이 우리가 직접 지각할 수 없는 것을 그와 유사한 구체적 사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에 따르면 상징의 의미는 신자들에게만 드러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상징이 지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Robert E. Webber, 1988: 140).

상징은 부연설명이 없어도 그 의미를 설명하고 인식하게 하는 힘을 지닌다. 성경도 상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감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상징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로 사용되는지를 알고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왔다(마 3:16). 이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의 모습은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기독교예술이나 기독교 건축이 비둘기 이미지를 사용할 때 그 이미지가 성령 강림을 나타내는 상징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회건축물에 표현된 상징은 성경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함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그러한 상징을 교회건축물과 예배 공간에 사용함으로써 그 장소를 사용하는 신자들이 지성적으로뿐 아니라 감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한다. 또한 아직 지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신자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신앙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방향과 초점을 만들어 줄 수 있다.

(2) 교회 건축물의 상징성 분석

김정태와 최상헌에 의하면 교회 건축물에 나타난 상징성을 분석하는 틀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문양과 수, 색채, 빛(채광), 재료 그리고 형태가 그것이다(김정태·최상헌, 2012: 3-19). 박기용과 김정재는 성경의 상징적 이미지를 한국교회 건축물 외부형태에 적용한 사례를 열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방주와 방패, 수정, 사닥다리, 알파와 오메가, 면류관, 무지개, 십자가, 접시, 하늘, 비둘기, 빛이다. 그들에 따르면 첫째, 산성교회는 “종탑을 뱃머리로 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방주(박기용·김정재, 2001: 124)” 이미지를 통해 구원하는 공간을 상징한다(창 7:9-22). 둘째, 80년대에 건축된 여러 교회 건물 정면에 사용된 방패 이미지는 믿음을 상징한다(엡 6:16). 셋째, 임마누엘 교회가 사용한 수정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계 21:11). 넷째, 교문 교회 종탑 정면에 사용된 사닥다리는 야곱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하며(창 28:12). 다섯째, 덕수 교회가 박공면에 사용한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처음이시고 끝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심을 상징한다(계 22:13). 여섯째, 능곡 교회 천장에 사용된 면류관은 면류관을 받은 24장로를 상징하며(계 14:14),² 성락 교회 측면에 사용된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가시면류관을 상징한다(마 27:29). 일곱째, 벨엘 교회와 새사랑 교회에 사용된 무지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한다(창 9:13-16). 여덟째, 잠실 교회의 천장과 서라벌 교회의 벽면에 사용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한다(고전 1:18). 아홉째, 미스바기도원 계단실 상부에 사용된 접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한다(계 5:8). 열째, 시흥 교회 예배실 천정에 사용된 하늘 이미지는 천국을 상징한다(요 3:13). 열한째, 개포동 교회에 사용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며(마 3:16), 열두째, 삼덕 교회 등에서 계단에 떨어지도록 설계된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행 2:3)(박기용·김정재, 2001: 124-128).

김근식과 한종구, 이경희는 성경에 나타난 상징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그 상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성경적 메시지를 담은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문양은 Table 1 과 같다(김근식·이경희, 2002: 103; 김근식·한종구·이경희, 2002).

앞서 교회건축물의 외부 형태에서 사용된 상징을 살펴보았다. 이제 교회 건축물의 내부 형태에서 사용되는 상징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김근식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삼각형은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새예루살렘을 상징한다. 아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의 기둥과 벽을 연결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성례전을 상징하기도 한다. 또한 계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순례길을 상징한다.

2) 박기용과 김정재는 여섯 번째 사례를 언급할 때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 구절에 따르면 능곡교회 천장에 사용된 면류관은 24장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계 14:14)

Table 1. Types and symbolic meanings of motif

Type	Theological meaning	Place	Biblical content
Crown	The glory of the eventual winner	Sanctuary, Basin, Supports	Four crown, REV 6:2
Lion	Power, Courage, Regal power, Jesus	Sanctuary, Basin, Supports	GEN 49:9
Palm Tree	Prosperity, Beauty, Victory	Sanctuary, Basin, Supports	Palm trees and bloomed flowers carved inside and outside the temple 1 KI 6:29
Ark	Salvation, A means to save the sinful world from ruin, Baptism	Catacombs mural	HEB 11:7
Cherubim	Angels guarding the holy place of God	Wall of sanctuary, Door, Curtain	Cherubim and a flame sword guarding the way to the tree of life on the east side of the Garden of Eden GE 3:24
Open flowers	Mature faith	Sanctuary door, Sanctuary wall	1 KI 6:29
A bunch of grapes	The richness of the promised land, The profusion of God's promises		NU 13:23
Sheep	Jesus the Sacrifice, Innocence	Catacombs mural	PS 23, ISA 1:18
Rainbow	The covenant between the Creator and creation		GEN 9:12-16, EZE 1:28 Benevolence, Glory
Circle	Perfection, Eternity, Infinity		PS 26:6
Fish	Jesus Christ, Savior, the Son of God	Catacombs mural	Multiple fish: faithful Christians
Ladder	ascension		JN 1:51
Pigeon	Peace, Gentleness, Purity, The Holy Spirit	Catacombs mural	MT 3:16-17
Alpha, Omega	Beginning, End		ISA 41:4, REV 1:8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불굴과 강인함을 상징한다(갈 2:9). 빛은 의의 태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요 8:12), 문은 성전문처럼 거룩한 곳과 세속적인 곳의 경계를 상징한다(창 2:9)(김근식·한종구·이경희, 2002: 547).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건축가가 교회건축물에 사용한 문양이나 양식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명시적이고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주변 환경이나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그 메시지를 간접적이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교회 건축물에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교회 건축물에 상징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례는 아직도 많은 편이 아니다. 또한 교회 건축물에 사용된 상징적 이미지도 몇 가지 종류의 이미지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김근식 등이 지적하듯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상징들을 매우 다채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교회 건축가들은 좀 더 다양한 상징적 이미지와 표현 방법을 교회건축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김근식·한중구·이경희, 2002: 548).

3. 예배 공간으로서의 교회건축물

종교적 기능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교회건축물은 그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는 공간을 지녀야 한다. 그러면서도 교회 건축물 공간 중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는 예배실은 예배라는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한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신자들의 믿음과 영성을 고양시키고 말씀 선포를 통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신자들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예배 공간의 디자인은 그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 예배실은 교회 건축물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 건축물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공간이고 기독교의 상징성 표현이 가장 많은 공간이다(김정태·최상헌, 2012: 4).

다목적으로 사용되면서도 예배 공간의 디자인은 종교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디자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배 공간은 예배라는 종교적 기능이 그 밖의 다양한 기능들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동시에 반영되는 디자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교회 공동체의 구심력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능을 나타내며, 교회 공동체의 원심력은 예배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을 다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함께 하는 공간인 예배 공간은 심미적 요소뿐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을 반영하는 상징적 요소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오영석, 2003: 261-265).

예배 공간 가운데 특히 강단 공간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배실 강단 공간디자인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규백은 국내 개신교 강단의 디자인 유형을 강단 배치, 평면 유형, 입면 유형, 천장, 창 유형, 가구 유형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가 내린 결론에 따르면 국내 개신교 강단의 디자인은 다기능적이고 개방적이며 다양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르면 상징과 장식이 배제된 개신교 강단의 인테리어는 상징과 장식을 배제한 결과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그는 개방성과 다기능

성을 지니면서도 기독교적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학에 바탕을 두어 기독교의 상징을 잘 사용하여 예배 공간이 종교적 체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내디자인이 독창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이규백, 2006: 174).

김정태, 최상현(2012)은 개신 교회 14곳의 대 예배실을 분석하여 상징표현 요소와 상징표현 틀을 도출하여 빛의 유입 요소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은유적인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밝혔다(김정태·최상현, 2012: 3-11).

교회건축에서 예배 공간의 구성 요소와 의미를 살펴보면 최준영, 강철희의 연구에 다섯 가지로 드러나 있다(최준영·강철희, 2019: 144-147). 첫째로 강대는 4세기경에 나타난 낭독대에서 출발하였고 종교개혁이후에 예배가 설교위주로 변화하여 역할과 위상이 변화하였다. 현대 교회의 건축경향은 강대의 위치가 낮아진 것인데 이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둘째로 성찬대는 로마 가톨릭의 제단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봉헌이 기념되고 현재화 되는 장소이며 주의 식탁이고 성찬과 봉헌이 완성되는 예배의 중심적 의미가 있다. 현대에는 설교와 찬양 중심의 예배가 강화되어 성찬대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며 강단에 성찬식이 있을 때 성찬대는 이동식 탁자로 사용하는 교회가 늘고 있다. 셋째로 회중석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존경과 숭배를 표현하기 위한 장소이다. 따라서 말씀과 표징으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넷째로 세례반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와 연결되는 의식이며 교회의 일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상징한다. 전통적으로 예배당 입구에 두고 있다. 현대 교회에서는 세례 때 놓고 서례를 거행한 후에 치우는 식으로 건축 내부 구성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로 성가대석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 현대교회에서는 회중의 전면 내지는 예배의 중심 가까이 배치하여 회중의 찬양을 인도하고 회중을 향해 노래하기도 한다. 세례반과 성찬대는 현대교회의 내부 건축 구성요소로 생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배 공간을 좀 더 세분화한 구성요소로 분석한 김기현, 이규백에 따르면 Table 2와 같이 예배 공간의 구성별 분석은 예배 공간 형태, 강단부 구성방식, 성가대석, 회중석이라는 네 가지 구분을 보여준다. 이 구분을 정확하게 세분화하면 예배 공간 형태는 다시 여덟 가지 평면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장방형, 십자가형, 원형, 타원형, 정방형, 부채형, 중심형, 기타 기하학형이나 복합형으로 구분된다. 단면 형태는 세 가지로 플랫폼형, 발코니형, 프로세스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강단부의 구분은 다섯 가지 구성방식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평면 형태, 제단의 배치 형태, 강단의 배치 형태, 입면 형태, 그리고 십자가를 설치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성가대석은 배치 위치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회중석은 배치 형태와 의자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김기현·이규백, 178, 175-182; 임광성, 2002: 55-70; 유보영, 2006: 33; 이규백, 2006: 64, 177-178; 김원영·이경희, 1991: 113, 이광노외 4인, 2005: 358; 성은석, 2003: 35).

Table 2. Analysis of spatial structure

Type	Analysis elements				
Worship Space	Plane Form	Rectangle shape	Crucifix shape	Circle shape	Ellipse shape
		Square type	Fan shape	Central shape	etc: Geometric, Complex, Various type
	Sectional form	Flat type	Balcony type	Proscenium type	
Pulpit area construction way	Plane form	Closed type		Open type	
	Altar layout	Altar at the center			
		center-axis type	Triangular axis	One-sided axis	
		Alter + Pulpit		Pulpit at the center	
	Layout type	Longitudinal space	Transversal space	Centralized space	
	Sectional form	Vertical type	Horizontal type	Flat type	
The Cross	Installation		Non-installation		
Choir loft	Layout type	Behind the pulpit	The front of a pulpit		The side of a pulpit
		In a congregation	Back of a congregation		Alcove type
Congregation Seat	Layout	Axial layout		Centripetal layout	
	Seat type	Benches		Individual chairs	

4. 백석대학교회 예배 공간의 분석

(1) 백석대학교회 예배 공간의 구조 분석

김기현과 이규백의 구분에 따라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석대학교회 예배 공간의 형태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면 형태는 장방형이고 단면 형태는 발코니형이다. 전통예배 공간에서 가장 선호하는 형태가 부채형 평면이고 두 번째로 선호하는 형태가 장방형이다. 평면 형태가 장방형인 공간에서는 설교중심의 예배가 진행되기에 좋다. 많은 성도를 수용하고 설교에 집중시키기 위한 형태이다. 단면 형태가 발코니형인 예배 공간은 예배의 수용 인원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외에도 수평적인 단층 공간보다 수직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공간인지 범위를 좁혀 더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일체감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Table 3. Analysis results of spatial structure of the Baekseok 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

Type	Analysis result				
Worship Space	Plane Form	Rectangle shape	Crucifix shape	Circle shape	Ellipse shape
		Square type	Fan shape	Cent-ral shape	etc: Geometric, Complex, Various forms
	Sectional form	Flat type	Balcony type	Proscenium type	
Pulpit area construction way	Plane form	Closed type	Open type		
	Altar layout	Altar at the center			
		center-axis type	Triangular axis	One-sided axis	
		Alter + Pulpit	Pulpit at the center		
	Layout type	Longitudinal space	Transversal space	Centralized space	
	Sectional form	Vertical type	Horizontal type	Flat type	
The Cross	Installation	Non-installation			
Choir loft	Layout type	Behind the pulpit	The front of a pulpit	The side of a pulpit	
		In a congregation	Back of a congregation	Alcove type	
Congregation Seat	Layout	Axial layout		Centripetal layout	
	Seat type	Benches		Individual chairs	

예배 공간의 강단부는 현대 신앙의 모든 요소가 압축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신앙의 전통과 관습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부분으로서 각 교회 교파에 따라 약간씩 다른 구성방식을 보이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참여와 적극적인 영적 체험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김근식·이경희, 2002: 101). Figure 8에서 볼 수 있듯이 강단부 구성방식에서 제단배치 형태는 설교대 중심이며 강단부 배치 형태는 등축성이며 입면형태는 수직적이고 강단부에 십자가는 설치하지 않았다. 강단부가 설교대 중심인 것은 전통 예배 공간의 제단 중심 강단부와 대조적인 공간 형태로 권위적인 요소가 덜 부각시키며 동시에 설교가 예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드러내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간 활용면에서 가변적이고 다목적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Figure 7. Front of Worship space (Haeun Hall) Source: http://www.bupc.or.kr/intro_09_2018_1



Figure 8. Worship space (Haeun Hall) of Baekseok 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 Source: http://www.bupc.or.kr/intro_09_2018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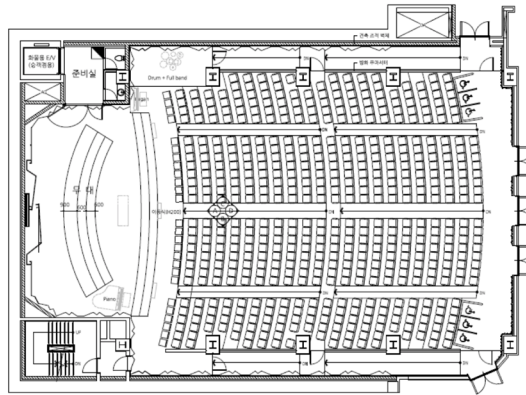


Figure 9. Floor Plan of Haeun Hall

Figure 9 하은홀의 평면 도면에서 볼 수 있듯이 강단부의 배치 형태가 등축성인 것은 직사각형의 평면이기 때문에 나타나면 부채꼴 평면으로 설계되었다면 주로 한쪽 모서리에 강단이 있는 사축성으로 사용될 것이며 유심축성은 가운데에 강단이 있고 둘러싸는 형태로 회중석이 배치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들은 신도들을 예배에 집중시키기 위한 특성을 반영하는 구조로 평면 형태와 관련이 있다. 입면형태가 수직적인 것은 경건하고 위엄 있는 예배의 특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이다. 십자가의 설치하는 예배 전용공간에서 설치하는 비율이 높는데 예배 장소라는 장소성의 강조와 신성한 예배 공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그러나 많은 현대적인 예배 공간은 예배를 드릴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행사들도 진행하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백석대학교교회도 강단 벽면에 십자가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백석대학교교회만이 가진 기독교적인 상징성을 강단 벽면에 구현하였다. 또한 강단 앞쪽에는 스크린이 두 개 설

치되어 있어 미디어 기술로 화면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해주고 있다.

백석대학교교회 성가대는 Figure 8과 Figure 10에서 알 수 있듯이 성가대석을 따로 두지 않고 설교단 아래의 회중석 중 왼쪽 앞쪽부터 10여개 열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는 강단으로 나가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성가대 계단 위에 정렬하여 찬양하고, 다시 회중석으로 들어와 앉아서 나머지 순서의 예배를 드린다. 성가대석은 찬양이 끝나면 강단의 아래로 내려간다.

Figure 8과 Figure 9에서 알 수 있듯이 회중석은 유축형이며 회중석의 의자 형태는 극장형 개별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 성가대석은 전통적으로 회중들과 분리되어 성가대의 권위와 성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으나 백석대학교교회의 성가대는 회중석에 함께 앉음으로써 회중과 성가대가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공동체 의식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목적에 맞게 좌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회중석이 유축형인 것은 예배에 성도의 초점이



Figure 10. Preparation for baptism and sacrament of Baekseok 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 Source: http://www.bupc.or.kr/webcasting_02_2018



Figure 11. Close-up of front wall of worship space, Source: Homepage of Baekseok 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 Worship. Source: http://www.bupc.or.kr/BHN_SVP/FP/bhn_player.html?src=rtmp://bupc.or.kr/vod/sermon/mp4:91201.mp4&mode=sidebyside&scaleMode=fit&themeColor=ff9900&frameColor333333&fontColor=cccccc&autostart=true&width=720&height=445.

모아지도록 공간을 배치한 것이며 신자들이 말씀설교와 찬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개별 의자는 회중이 일정한 간격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예배 중 회중들의 적극적인 참여(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나 일어서는 동작 등)를 유도하기가 장의자보다 수월할 수 있다.

Figure 10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석대학교교회의 세례반과 성찬대는 앞에서 살펴본 현대교회의 내부 건축물의 구성요소가 보여주는 추세(최준영·강철희, 2019: 144-147)에 따라 내부 건축 구성요소에서 생략되어 필요할 때에만 사용되고 있다.

(2) 백석대학교회 강단 벽면 형태의 상징성 규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의 건축물중 특히 교인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설교 강단의 디자인은 예배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하다(유용우, 2014: 176). 교회 공간에서 강단은 성도들과 목회자의 소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 공간이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예배 공간은 상징이 특별히 중요한 장소이다.

공간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기독교적 구속관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Robert E. Webber, 1988: 186; 정시춘, 2004: 196)이며, 공간의 형태, 크기, 높이, 공간의 어둠움과 밝음, 공간의 방향성,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천정 벽, 바닥의 재료와 구성 등 모든 것이 기독교적 상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21세기의 교회건축이 추구하는 경향은 개념이나 지각과 같은 비물질적 특성을 건축물에 시각화시키고 실재로 구현하여 신성하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예배 공간을 표현하는 것(박기범·신흥경, 2007: 260-263)이라고 박기범과 신흥경이 밝힌 내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다른 부분들로부터 구분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징적 방법들이 건축설계에 도입된다(정시춘, 2004: 197). 공간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회중이 집중하는 장소인 강단은 예배 공간 디자인의 핵심에 놓이게 된다.

백석대학교회의 강단부 벽면은 Figure 11에서 알 수 있듯이 갈라진 벽면의 형태이다. 문양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벽면 대리석이 갈라져 양쪽으로 쪼개져 있는 형태로 건축되어 있다. 갈라진 반석의 틈을 보여주는 이 형태는 백석대학교회 강단부 디자인의 독특성이다. 이 형태에 대한 상징성을 성경구절과 함께 드러내고자 한다.

첫째로, 갈라진 바위틈은 보호를 위해 숨기시는 안전한 장소를 상징함으로써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낸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영광을 보기를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를 반석 틈에 숨기신 장면이 있다. 출애굽기 33장 18-23절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네 앞에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한다.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배려하셔서 그를 그분을 상징하는 바위틈에 숨기시고 덮으신 후에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도록 배려하신다.

성도들에게 큰 바위의 갈라진 곳, 즉 바위틈에 들어가 피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 이사야 2장 10절과 19절, 21절이 대표적이다.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와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사 2:10).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사 2:19). “암혈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사 2:21).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위급하고 절박할 때 바위틈에 숨는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바위틈에 숨어서 목숨을 건지는 장면은 사사기에 나온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틈에 머물렀더라.”(삿 15:8)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후에 보복을 피하기 위해 바위틈에 숨어 있었다. 유다 사람들이 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찾아오기까지 그곳에 계속 숨어 있었다. “그들에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 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 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삿 15:12-13) 바위틈은 매우 안전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도 삼손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야 그의 저항 없이 그를 바위틈에서 끌어낼 수 있었다.

사무엘상 13장 6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 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아무리 강한 병력이라 할지라도 바위틈에 숨은 이스라엘 사람을 쉽게 공격할 수 없었다. 바위틈은 그만큼 안전한 장소였다. 이러한 성경구절에서 보여주듯이, 위급한 상황일 때 바위틈에 숨어야 하는 모습은 우리 죄인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며,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반석임을 떠올리게 한다.

예레미야 13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베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않고 물가의 바위틈에 여러 날 감추었다가 다시 꺼냈을 때 썩어서 쓸모없게 된 것을 보게 하셨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설명해주신다. 여기서 바위틈은 비록 사람을 숨기는 곳은 아니었지만 베띠가 그 곳에 온전히 보존되도록 안전한 장소이다.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프라테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렘 13:4). 바위틈에 감추어진 허리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요한계시록 6장 15-17절은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도피하는 안전 장소가 바위틈임을 잘 보여준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계 6:15),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계 6: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 6:17).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에 바위틈에 숨고자 하지만, 그 바위는 진정한 바위가 아니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을 때에만 마지막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둘째로, 자만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는 이방인의 장소를 상징함으로써 성도가 스스로 돌아보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바위틈은 인간을 보호하는 상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레미야 48장 28절은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한 모압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다. 한 때 번성했던 모압은 이제 조롱거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렘 48:28). 그들은 더 이상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성읍에 살 수가 없고 바위 사이에 살 수밖에 없다. 모압 주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으며 바위에 의지해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예레미야 49장 15-16절은 에돔 백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 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렘 49:15-16). 에돔은 바위틈에 살면서 독수리의 보금자리와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자랑하며 하나님에 맞서 교만했지만, 그러한 바위틈과 보금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력하다.

오바다 1장 3절도 동일한 지적을 한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옵 1:3). 그들은 바위틈에 거주하면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만큼 바위틈은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 외의 어떤 반석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 인간의 이와 같이 잘못된 상황은 이사야 57장 5절에서도 볼 수 있다.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사 57:5)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바위틈에서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칠 자녀를 죽이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들이 비록 바위틈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셋째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할 곳이 되어 주시는 바위이심을 나타낸다. 시편 18장 2절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요 내가 그 안에 피

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시편 71장 3절은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라고 말씀한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쪼개지심(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가 위급할 때 안전하게 숨고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신다.

넷째로, 반석을 쪼개어 생수를 낸 기적을 상징함으로써 영적 생명수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알게 한다. 지금까지 두 쪽을 갈라져 있는 바위를 성경에서 살펴보았다. 이제 갈라짐이라는 동적인 상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시편에서 갈라짐과 쪼개짐(cleft, split)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타난다. 시편 74장 15절은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한다. 이 말씀은 광야 프리바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 또한 시편 78장 15장에서도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라고 나온다. 이사야 48장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어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반석이신 자신을 쪼개어 그 안에 흘러나오는 물로써 백성을 살리신 기적을 나타낸다.

다섯째로, 찢겨진 성소휘장을 통해 죄에서 구원하심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신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며, 기도가 신자의 특권임을 깨닫게 한다.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돌이 되었다. 마태복음 27장 50절-51절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말씀한다. 또한 “마가복음 15장 37절-38절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고 말씀한다, 누가복음 23장 45절-46절도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고 말씀한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는 말씀을 발견한다. 이는 찢어진 휘장이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를 나타내며,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겨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지심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열어주심을 뜻한다.

(3) 상징적 분석의 틀의 적용

백석대학교회 강단 디자인의 종교적 상징성을 분석하기 하기 위해 앞서 상징성 분석의 틀을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그런데 그 다섯 가지 틀이 디자인의 종교적 상징성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모든 강단 디자인에서 다섯 가지 틀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틀은 백석대학교회 강단 디자인의 종교적 상징성을 분석할 때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

그 분석의 첫 번째 틀인 문양과 수와 관련하여 덕수교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는 알파와 오메가를 박공면에 사용하였다. 프랑스 통상의 노트르담 뒤 오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방주, 오리, 사제의 두건, 성도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등의 이미지를 교회 외형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다. 사다리꼴 사각형 평면이 기능과 형태에 따라 곡선화되었고 비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방이 확 트여 있는 장소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 교회와 세상의 이원론적 분리를 극복하고자 했다. 또한 산성교회는 종탑을 뱀머리 모양으로 디자인하여 교회 외부 전체가 방주처럼 보이도록 건축되었다. 80년대에 건축된 여러 교회의 정면에는 믿음을 상징하는 방패 이미지가 있었다. 교문교회 종탑 정면에 사용된 디자인은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수직적 연결과 교제를 상징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양과 수는 백석대학교회 강단 디자인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백석대학교회 강단이 평일에는 연주회나 강연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 강단을 채우는 다양한 상징들을 다 담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도리어 르비딤의 쪼개진 반석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설교강단 뒤에 위치시킴으로써, 영상 스크린에서 설교자의 뒷면에서 그 디자인이 집중 부각되게 함으로써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원천에 집중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통상의 노트르담 뒤 오 교회나 산성교회가 교회 외관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손이나 방주와 같은 이미지를 구현함으로써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세상에 선포하는 기능을 하는 데 반해, 백석대학교회 강단 디자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구성원들에게 베푸시는 영적 음료와 양식을 교회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 상징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능곡교회 천장에서 새겨진 면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며, 잠실교회의 천장과 서라블 교회의 벽면 디자인을 이루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하며, 시흥교회 예배실 천정에 사용된 하늘 이미지가 천국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

동일한 이유 때문에 두 번째 틀인 색채도 백석대학교회강단 디자인에서 강조되지 않았다. 백석대학교회의 강단은 바위와 같은 느낌을 주는 마감재 그대로의 재질을 살려서 색깔 마감을 하지 않았다. 이는 백석대학교회 강단 디자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르비딤의 반석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틀인 빛(채광)과 관련해서는 창문이 없는 밀폐된 예배 공간을 고려하여 자연광은 사용하지 않고 실내인공조명을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쪼개진 반석을 연상시키는 앞 벽면 안에 조

명을 설치함으로써 쪼개진 반석 안에서 빛이 비추어 나오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는 쪼개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보혈을 흘려주시듯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는 삼덕교회 등에서 제단에 떨어지도록 설계된 빛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며 개포동교회에 사용된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 삼덕교회 등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를 강조한다면 ‘오직 성경으로!’를 강조하는 개혁주의생명신학을 근간으로 하는 백석대학교회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틀인 재료와 관련하여 백석대학교회 강단은 현대 건축물에 사용되는 대리석과 콘크리트, 마루, 목재 마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는 크고 작은 돌이 널려 있는 광야의 자연적 환경을 경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박기용과 김정재가 성경의 상징적 이미지가 교회 건축물에 적용된 사례를 제시할 때에 재료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국교회 건축물에 나타난 상징성을 분석할 때 재료와 관련된 상징성 부분이 좀 더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섯 번째 틀인 형태가 백석대학교회강단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르비딤의 쪼개진 바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회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설교강단 뒤에 쪼개진 바위 형태의 이미지를 설계함으로써 설교의 본질과 의미를 시각적으로 잘 부각시킨다 할 수 있다. 이는 미스바 기도원 계단실 상부에 사용된 접시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올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함으로써 기도원의 본질과 역할을 잘 드러내는 것과 같다.

서론에서 예배 공간이 종교적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공간이어야 함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교회는 세상과 만나는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백석대학교회 강단디자인이 십자가와 같이 분명한 종교적 이미지보다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르비딤 반석 이미지에 집중한 것이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십자가와 르비딤 반석 사이의 연결점을 모르는 비기독교인들도 거부감 없이 그 공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공간이 세상과의 접촉점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그 결과 평일에 연주회나 강연회 같은 비종교적 행사가 그곳에서 진행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은연중에 함축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이미지에 노출됨으로써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

III. 결론

교회 건축물과 예배 공간, 부속 공간이 종교적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해 온 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미 중세 유럽에서부터 교회가 자리한 광장뿐 아니라 교

회 건축물 공간 자체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교회가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며 지역공동체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교회 건축물과 교회 공간이 종교적 기능에만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종교적 기능을 중심으로 인간 삶의 다양한 국면들을 담아내는 다양한 기능들을 충족시켜야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국면을 다스리셔야 한다는 하나님나라운동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종교적 기능만 부각시키는 교회 건축 디자인이나 예배 공간 디자인보다는 종교적 기능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디자인이 더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 건축물에 사용된 상징적인 이미지는 몇 가지 종류의 이미지에 편중되어 나타난 것이 현실임을 고려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다양한 상징들이 성경에 나타나있기때문에 백석대학교회의 갈라진 벽면은 교회 건축물에서 매우 독특한 상징 이미지 사례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이 논문이 주요 사례로 잡은 백석대학교회의 본당인 하은홀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졸업식 등 대학교의 주요 행사에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디자인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은홀의 디자인은 단지 교회본당으로서의 디자인이 아니라 다기능적인 공간이 되어야하면서도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공동체를 묶어주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본 논문에서 하은홀 강단의 벽 디자인 형태에 성경 말씀을 적용하여 기독교적인 상징성을 드러냄으로써 백석예술대학교 하은홀은 다목적의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풍부한 기독교적 메시지를 주고 신앙적인 일깨움을 주는 현대적 교회건축 양식의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석대학교회의 강단부의 갈라진 벽면의 형태는 백석대학교회 건축의 독특성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신앙적 상징성을 갖는다고 규명할 수 있으며 이 상징성들은 각각 성도들에게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함으로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일깨우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1) 바위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보호를 위하여 숨기시는 안전한 장소를 상징함으로써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낸다. 2) 자만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는 이방인의 장소를 상징함으로써 성도가 스스로 돌아보아 깨닫게 한다. 3)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 4) 반석을 쪼개어 생수를 낸 기적을 상징함으로써 영적 생명수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알게 한다. 5) 찢겨진 성소회장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상징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드리는 기도가 성도의 특권임을 깨닫게 한다.

특히 르비딤의 쪼개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음료가 된 것처럼 백석대학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백석대학교회 공동체의 영적 음료가 될 뿐 아니라 백

석대학교회를 통해 백석학원과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영적 생수가 되고 있는 현실과 그렇게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백석대학교회의 강단부의 갈라진 벽면 형태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디자인이야말로 백석대학교회가 감당하는 다양한 기능이 결국 종교적 기능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디자인이라고 결론내리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근식, 이경희. (2002). 현대 교회건축에 나타난 상징적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8(1), 99-106.
- [Kim, G. S., Lee. K. H. (2002).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Symbols in Modern Church Architectureeld & New.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18(1), 99-106.]
- 김근식, 한종구, 이경희. (2000). 현대 교회건축에 나타난 상징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건축가의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0(2), 545-548.
- [Kim, G. S., Han. J. G., Lee. K. H. (2002).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Symbols in Modern Church Architecture: focused on analysis of architect' work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0(2), 545-548.]
- 김기현, 이규백. (2009). 1990년이후 한국 개신교회의 예배유형에 따른 예배 공간특성 - 전통예배 공간과 현대예배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8(5), 175-182.
- [Kim, K. H., Lee. K. B. (2009). The Characteristic of Worship Space of Worship type in Korea Protestant Church Since 1990 - Focus on the Traditional Worship Space and the Contemporary Worship Spac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8(5), 175-182.]
- 김문환 편역. **20세기 기독교와 예술**. Richard H. Ritter et al. (1986). *The Arts of the Church*.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im. M. H. (1986). *The Arts of the Church*.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Trans. Richard H. Ritter et al. (1947). *The Arts of the Church*. Mountain View: Pilgrim Press.]
- 김용신. (2016). 성경에 나타난 예배 형태의 발전적 이해. **개혁주의교회성장**, 9, 8-36.
- [Kim. Y. S. (2016).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the Configuration of the Worship in the Bible. *Reformed Church Growth*, 9, 8-36.]
- 김원영, 이경희. (1991). 현대교회건축의 강단부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11(1), 111-114.
- [K. W. Y., Lee. K. H. A Study on the Planning of the Chancel Space in Modern Church.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11(1), 111-114.]

김정오, 이재규. (2015). 교회공간의 빛과 강대상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32, 19-33.

[Kim. J. O., Lee. J. K. (2015). The Study on the Symbolism of Light and the Pulpit in Church Spac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32, 19-33.]

김정태, 최상현. (2012). 한국 현대 개신교회 대예배실 디자인의 추상적 상징성 표현 분석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4), 3-11.

[K. J. T., Choi. S. H. (2012). A Study of Analysis on Abstract Symbolism Expression in Korean Contemporary Protestant Church Main Chapel Design.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21(4), 3-11.]

김희정. (2012). 교회 공간의 문화화가 영적, 양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26, 201-233.

[Kim. H. J. (2012). A Study of the Effect on the Spiritual and Quantitative Growth of Church Space Enculturation. *The Gospel and Praxis*, 26, 201-233.]

박광애. (2000). 교회의 꽃작품이 예배에 미치는 영향. **한국꽃예술학회지**, 2, 94-126.

[Park. K. A. (2000). A Study on Influence of Flower Work on Worship. *Korea Floral Art Research Association*, 2, 94-126.]

박기범, 신흥경. (2007). 21세기 교회 예배 공간 디자인의 표현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9(1), 260-263.

[Park. K. B., Shin. H. K. (2007). The Research regarding the Expression Tendency of 21 Century Service Space Designs.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9(1), 260-263.]

박기용, 김정재. (2001). 한국 현대 교회건축에서 나타난 수의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17(8), 3-12.

[Park. K. Y., Kim. J. J. (2001). A Study on the Numerical Symbolic Meaning in Modern Korean Church Architectur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17(8), 3-12.]

박기용, 김정재. (2002). 한국 현대 교회건축에서 표현된 상징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개신교 교회건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8(4), 121-132.

-
- [Park. K. Y., Kim. J. J. (2002). A Study on the Expressed Symbolic Image in Modern Korean Churches - Focused on the Protestant Church Architecture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18(4), 121-132.]
- 성은석. (2003). **현대 한국 개신교회 건축 예배 공간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남서울대학교.
- [Sung, E. S. (2003). A Study on the Design of Worship Spaces in the Modern Korean Protestant Church Buildings: Focused on the Recent Design Trend. Master Thesis. Namseoul University.]
- 오태주, 이상호. (2005). 현대교회건축에서 표현되는 성막건축의 신학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4(6), 185-192.
- [Oh. T. J., Lee. S. H. (2005). A Study on the Theological Symbolism on the Tabernacle's Expressed in Modern Church Architectur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14(6), 185-192.]
- 오태주, 이상호. (2006). 성막건축의 건축적 의미와 신학적 상징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5(2), 158-165.
- [Oh. T. J., Lee. S. H. (2006). A Study on The Theological Symbol and The Architectural Meaning in Tabernacles.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Journal*, 15(2), 158-165.]
- 유보영. (2006). **한국 대형교회 예배 공간의 특성**.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Yoo. B. Y. (2006). The Characteristics of Worship Space of Worship type in Korea Large Churches. Master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유용우. (2014). 교회 강단디자인을 위한 Pad감성평가모형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30, 175-188.
- [Yoo. Y. W. (2014). A Study on the PAD Emotional Evaluation Model of Church Chancel Design.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30, 175-188.]
- 왕대일. (2009). 시편의 신학: 시내 산과 시온 산. **구약논단**, 15(2), 10-29.
- [Wang. D. I. (2009). Theology of the Book of Psalms - Sinai and Zion -. *Korean Journal of Old Testament Studies*, 15(2), 10-29.]
- 이광노 외 4인. (2005). **건축계획**. 서울: 문운당.

- [Lee, K. N. et al (2005). *Architecture Design*, Seoul: Monoondang]
- 이규백. (2006). 현대교회건축 인테리어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국내 개신교회 강단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64, 173-182.
- [Lee. K. B. (2006). A Study on the Character of Interior Design of Modern Church - Focused on the Chancel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64, 173-182.]
- 이다연. (2011). 예배 공간과 멀티테라피 - 성막에 나타나는 오방색의 의미분석 중심으로-. **기독교철학**, 12, 69-95.
- [Lee. D. Y. (2011). Worship Space and a Multi-therapy -Centered on the Meaning of the Aanalysis Ohbang-saek that Appears in the Tabernacle-. *Journal of Christian Philosophy*, 12, 69-95.]
- 이상원, 권수경 역. (2000). **조직신학**. Berkof, L.(2000). Systematic Theology.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Lee, S. W., Kwon, S. K. (2000). Systematic Theology. Seoul: Christian Digest. Trans. Berkof, L. (1996).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rdmans]
- 이은경. (2014). 교회교육의 장으로서의 공간에 대한 교육학적 이해. **기독교교육논총**, 38, 281-305.
- [Lee. E. K. (2014). An Educational Understanding of Space as the Locus of Church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8, 281-305.]
- 임광성. (2002). **한국현대개신교회건축의 예배 공간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Lim. G. S. (2002).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Worship Space Plan by the Protestant Church in Modern Korea. Ph.D.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 임석재. (2008). **교양으로 읽는 건축: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 건축 바로 알기**. 서울: 인물과 사상사.
- [Lim, S. J. (2008). *An Introduction to Architecture*, Seoul: Inmul]
- 전창희. (2016). 기독교 예배 공간에서의 빛의 상징성과 창의력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1, 61-84.
- [Jeon, C. H. (2016). A Study on Light as Symbol and Human Creativity in Christian Worship Space. *Theology and Praxis*, 51, 61-84.]
- 정시춘, (2004). **교회건축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발인.
- [Jung, S. C. (2004). *An Understanding of Church Architecture*, Seoul: Baleon]

- 정장복 역. (1991). **복음적 예배의 이해**. Jones, Ilion T.(1991). A Historical Approach To Evangelical Worship.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 [Chung, J. B. (1991). *A Historical Approach To Evangelical Worship*, Seoul: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Trans. Jones, Ilion T. (1954). A Historical Approach To Evangelical Worship. Nashville: Abingdon - Cokesbury]
- 정장복 역. (1995). **예배의 역사와 신학**. Webber, Robert E.(1994). Worship Old & New.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Jung, J. B. (1995). *Worship Old & New*, Seoul: Korea Presbyterian Press. Trans. Webber, Robert E.(1994). *Worship Old & New*. New York: Harper Collins]
- 정장복. (2003).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 [Jung, J. B. (2003). An Introduction to Worship, Seoul: Worship and Preaching Academy]
- 조용일 이은석. (2004). 가변적 Complex space” 개념을 활용한 도시형 교회건축. **대한건축학회 학술 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4(2), 291-294.
- [Cho. Y. I., Lee. E. S. (2004). The Planning of Urban Church developed by the concept of Flexible Complex Space -The proposal for the acquirement of flexibility for the complex church space open to the communi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4(2), 291-294.]
- 종교학대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29719&cid=50766&categoryId=50794>(2018. 12. 20)
-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629719&cid=50766&categoryId=50794>(2018. 12. 20)]
- 최선민. (2014). 한국 대형교회의 공적 공간 역할기대와 디자인 요구 환경개선에 대한 기초 연구. **전시 디자인연구**. 20. 16-26.
- [Choi. S. M. (2014). A Basic Study on the Role Expectation of Public Space and Improvement of Design Requesting Environment in Korean Large Churches. *Korea Society of Exhibition Design Studies*, 20. 16-26.]
- 최준영 강철희. (2019). 종교적 상징요소와 표현연출을 적용한 현대교회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9(1). 144-147.

[Choi. J. Y., Kang. C. H. (2019). An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Planning of modern churches Religious Symbolic Elements and Expressive Direction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39(1). 144-147.]

Giselman. Reinhard (1972). *New Churches*. New York: Architectural Book Publishing Co.

Close-up of front wall of worship space, 백석대학교교회 홈페이지. 예배. http://www.bupc.or.kr/BHN_SVP/FP/bhn_player.html?src=rtmp://bupc.or.kr/vod/sermon/mp4:91201.mp4&mode=sidebyside&scaleMode=fit&themeColor=ff9900&frameColor=333333&fontColor=cccccc&autostart=true&width=720&height=445. (검색일 2019.12.20.)

[Homepage of Baekseok university presbyterian church. Worship. Retrieved from http://www.bupc.or.kr/BHN_SVP/FP/bhn_player.html?src=rtmp://bupc.or.kr/vod/sermon/mp4:91201.mp4&mode=sidebyside&scaleMode=fit&themeColor=ff9900&frameColor=333333&fontColor=cccccc&autostart=true&width=720&height=445. (2019.12.20.)]

Front of Worship space (Haeun Hall) 백석대학교교회 홈페이지. 교회소개. http://www.bupc.or.kr/intro_09_2018_1. (검색일 2019.12.20.)

[Front of Worship space (Haeun Hall) http://www.bupc.or.kr/intro_09_2018_1. Retrieved from http://www.bupc.or.kr/intro_09_2018_1. (2019.12.20)]

Notre Dame, Ronchamp, and Initial sketches of Notre Dame. Le Corbusier, <https://www.arch2o.com/the-story-of-5-archists> (검색일 2019.11.05)

["The story of 5 'Archists'", ARCH201, Retrieved from <https://www.arch2o.com/the-story-of-5-archists> (2019.11.05)]

복합공간으로서의 교회 강단 디자인의 종교적 기능 실현을 위한 상징성 연구 - 백석대학교교회 강단 디자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ymbolic Meanings of Design of Church Chancel as Multispace for the Realization of its Religious Function - Focused on Baekseok University Church Chancel -

조애래 (백석예술대학교)

논문초록

본 논문은 교회건축물의 예배 공간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예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적인 상징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백석대학교교회 건축물을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공간의 특징과 상징성을 규명하며, 예배 공간 중 특히 강단 디자인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하여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지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백석대학교교회의 강단부의 갈라진 벽면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독교적 상징성을 갖는다고 규명할 수 있다. 첫째, 보호를 위하여 숨기시는 바위틈과 안전한 장소를 상징함으로써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낸다. 둘째, 자만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는 이방인의 장소를 상징함으로써 성도가 스스로 돌아보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셋째,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 넷째, 반석을 쪼개어 생수를 낸 기적을 상징함으로써 영적 생명수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심을 알게 한다. 다섯째, 찢겨진 성소 휘장과 죄에서 구원하심을 상징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로서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며 기도가 신자의 특권임을 깨닫게 한다. 백석대학교교회 강당의 벽면 디자인은 상징을 통해 신앙적 의미들을 드러내며 사용자들을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풍부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해준다.

주제어: 교회건축물, 예배 공간, 기독교적 상징성, 강단디자인, 신앙공동체